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同窓會 指標 ①參與하는 同窓會 ②協力하는 同窓會 ③榮光스런 同窓會

發行人 崔主鎭
編輯人 鄭宗正
印刷人 朴正雄

發行所

서울대학교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FAX: 703-0755

銀行계호 7500875

對淸口座 010017-31-0621565

[1] 月刊

1976. 4. 13 登錄番號 (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3年 2月 1日

第179號

冠岳에서 비롯되는 「새韓國」 그 意志

지난 年末 母校總長·補職교수를 비롯 同窓會 任員이 參席한 가운데 母校의 榮譽를 드높인 金泳三大統領당선자를 초청, 祝賀宴을 가졌다. 사진 右측부터 金鍾云總長, 金泳三大統領당선자, 崔主鎭會長, 金鍾泌總長



冠岳春秋

제14대 大統領으로 母校同窓인 金泳三大統領이 2월25일에 취임한다. 모교역사상 처음으로 大統領을 배출하게 되어 모교의 영광인 동시에 同門들의 金泳三次期 大統領에 대한 기대도 크다. 모교 동문으로서 金泳三당선자는 당선 즉시 모교를 방문하여 모교장비들과 환담했을 뿐만 아니라 入試시험장 후보들과 면담하여 입시지도를 얻었고 敎育革新을 단행할 것을 다짐하였다.

金泳三은 연립의 同窓會 상임이사회에도 출석하여 敎育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모교발전 계획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였기에 金次기 大統領에 대한 기대가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金次기 大統領은 選舉公約에서도 敎育의 필요성, 選擧公約에서도 敎育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GDP의 5%를 敎育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當選後에도 大學協議會 장부인 大學총장들을 만나 大學敎育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金泳三이 지정한 바와 같이 敎育은 百年大計일 뿐만 아니라 당면한 개혁의 첫대상이다. 역대 大統領이 敎育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大統領직속하에 敎育정책자문위원회 등을 만들었으나 4년이나 걸려보고서만 작성했을 뿐 뚜렷한 개혁을 단행한 적은 없었다. 金次기 大統領도 大統領직속하에 敎育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하여 기대해볼 만하나 우선은 積弊인 大學의 나후선부터 과감히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大學의 경우 수많은 인사를 배출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못하고 敎育개혁은 점진적이어야 하고 있다. 서울大學校만 하더라도 1만5천명 수업을 위한 시설속에 3만명의 수업을 받고 있으며 학생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大學교수의 증가는 적어 1대에서 2교수들의 대폭증원이 선행되지 않는 한 학생증원을 거

敎育大統領에 대한 期待

부하였다고 결의까지 하였다. 母校가 세계의 大學, 민족의 大學으로 발전한다고 長期發展計劃을 짰으나 그 실현은 요원한 상태에 있다. 理工科 大學의 실험기자재는 나후하여 국내 浦項工大나 科技大보다 떨어져 있고 실험실습비가 적어 있는 고를 기조차 관리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다. 法科大學의 경우 模擬法庭조차 없다. 도서관은 古書의 저장소로 하여 美國의 1백50위 大學의 수준에 상당한다. 敎育 투자에 비하면 우리 大學이 세계의 進運에서 낙후하여 과학 기술발달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지나친 平均化, 平均化 사상 아래 따라 전국의 國立大學이 下向평준화하고 있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다. 모교도 국립대학의 하나라 하여 예산편성시 다른 국립대학과 같은 기준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데 이는 모순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大學校는 大學院大學으로 우리 나라 大學敎育과 과학 기술연구를 선도해야 한다고 하여 서울大學校設置을 國立大學校設置令에서 분리한 仁別자치권을 감안하여 서울大學校를 특수대학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서울大學校는 국립대학이라 정 부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美國의 유수대학인 하버드대학이나 日本의 東京大學, 大灣의 大灣大學 정도로나 재정 투자를 해야 우리의 학문이 발전할 수 있다. 50년 1백년 나후 한 모교를 세계의 大學으로 雄飛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또 農業生命科學大學의 캠퍼스통합 등도 필요하다. 근시안적인 그린벨트 보존 때문에 大學의 발전이 저해되어서는 안 될것은 삼척동자에게도 명백하다.

金次기 大統領은 모교출신이기 때문에 모교 발전에 신노해야 할 뿐만 아니라 敎育 大統領으로 되기 위하여 敎育개혁의 선 도적 大學으로 모교를 지원하여야 한다. 진정한 大學院大學으로 연구 敎育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하여 헌신해 줄 것을 바라며 응원한다.

單大동창회 總會·賀禮會열려

崔희장의 신년인사에 이
어, 黃佑權(72년卒)동문
의 5명의 박사학위 취득
동문에게 기념패가 증정됐
다.

을하는 「海外支部 활성화」의 해

美洲지부등 任員陣 개편, 의욕 넘쳐

새해들어 동창회 海外支部의 활동이 눈에 띄게 분주해지고 있다. 동창회가 올해를 「해외지부 활성화의 해」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세부사업을 설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해외 각처에서 일고있는 지부활성화의 기운이 바야흐로 본계에도 들쳐와서 한층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우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캐나다 밴쿠버지부는 지난 연말 송년회 겸 정기총회를 열고 盧永福(52)년工大卒 동부를 신임회장으로 선임했다. 이어 미국 시카고지부도 연말 이사회에서 宋宰鉉(52)년醫大卒 동부를 93년도 회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宋회장은 취임인사에서 「대우 많이

시카고지부는 그동안 정기총회대회, 야유회 등의 친목행사와 아울러 冠岳誌 발간을 위한 동창회, 상호협조하는 동창회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女教授 회장에 俞泰烈 교수

「유대강화 위해 다양한 기획」 세워



◇ 宋宰鉉 회장



◇ 俞泰烈 회장

모교 女教授會는 최근 호남교수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진을 개설했다. 새회장으로 선출된 俞泰烈교수(55년 醫大卒)는 「양으로 주어진 2년의 임기동안 회원간의 유대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정해

간담회, 출판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한편 위신부부는 俞(66년工大卒) 동부를 남캘리포니아지부인 張東(57년工大卒) 동부를 각

자 새회장으로 선임하고 회장단을 개편, 새해 사업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하는 한편 본회의 유대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현재 在 美 서울대학교 동창회(회장 朴允洙)는 본부를 위신부에 두고 있으며, 회장단 산하에 출판, 재무, 감사파트를 설치하는 한편 미국 전역의 각지부를 평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在 美 서울대학교 재단 이사장 金永禧가 LA에 설치된 모교지부와 미주지역내의 장화사업들을 위한 기금마련을 하고 있다.

先輩의 대학 재학생에 도움

政治學科 동창회

정치학과 동창회는 지난 구랍 모교재학생들에게 사 회진출의 경험과 바람직한 조언을 들려주기 위해 행정부에 진출한 高建(56년卒) 前서울시청(동문과 朴容九) 62년卒 충주초조직국장(동문) 柳浩榮(76년卒) 경제기획원 사무관(동문) 이 50여 재학생들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세 등에 관한 여러가지 설명과 지침을 대학의 자리를 마련해 선배배의 진지한 답을 나누었다.

鄭鎬權 동문취임 建國大學校 총장

建國大學校 총장에 鄭鎬權 동문이 선임됐다. 55년 母校 農大 농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에서 미생물학과 교수로 봉직해온 鄭동문은 지난 28일 열린 同班인 이사회에서 제13대 총장으로 선임됐다.

현재 모교의 전임 여교수는 총 90명이며, 여교수 회원 역시 90명이다. 새로 개편된 그밖의 임원인 다 음과 같다.

△부회장: 朴熙鎭(인문대) 權潤芳(사대) 李基春(가정대) △감사: 徐鳳延(사회대) △총무: 金貴賢(음대)

캐나다 밴쿠버는 특히 친해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태평양 연안의 도시로서, 연말, 수산업, 관광업 등이 발달해 있다. 모교간의 교류를 위한 슬러니의 스키장을 찾아 각지의 인파가 몰려온다. 밴쿠버를 수국의 모델이 많아 호환을 맞기도 한다. 거주교민 1만 5천여명중 서울대인은 1백 20여명 정도다. 이들 중 조선·한국·의료·교육계 등 전문분야의 비율이 높고 있다.



◇ 지난 연말 열린 총회에서 前任 韓규진 회장(左)과 함께한 新任 노영복 회장

「동창회 文庫」 설치 등 남다른 의욕 現지에 「韓國學 연구소」 설립 추진

本會 1백여 과 학 기 금 에 도 同 參

R캐나다 밴쿠버는 특히 친해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태평양 연안의 도시로서, 연말, 수산업, 관광업 등이 발달해 있다. 모교간의 교류를 위한 슬러니의 스키장을 찾아 각지의 인파가 몰려온다. 밴쿠버를 수국의 모델이 많아 호환을 맞기도 한다. 거주교민 1만 5천여명중 서울대인은 1백 20여명 정도다. 이들 중 조선·한국·의료·교육계 등 전문분야의 비율이 높고 있다.

술을 근간으로 한 同窓會 文庫 설립을 여타 지부에서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 총회에서 韓學 연구소 설립을 추진했다.

한편 본회는 밴쿠버지부의 유스센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밴쿠버시립대(UBC), 사이모프레이 대학 등 재학생인 동문들에게

會報 발간·동문음악회 등 활동 돈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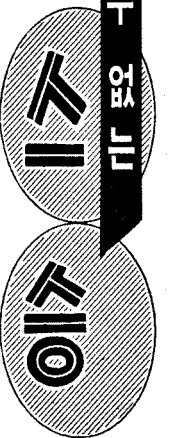
중심으로 「韓國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미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연구소는 현지교민은 물론, 국내 기업체의 출연, 현지대학의 협조 등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한편 한국인 교육, 양육, 교류 등에 전초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계획의 일단에서 추진 설립 운영에 이르기까지 현지 서울대인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 한다. 이와 관련해 同會는 UBC한국학 연구위원회에 지부명의로 1천불을 기부했다. 한편 본회는 밴쿠버지부의 이러한 활동을 더욱 고무하고 현지동문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지난 달 회장의 美洲순방시 이 지역을 방문했다.

支:部:안:테:나

캐나다 밴쿠버支部

먼저 사정부는 30여년
간 우리사회 구성구석에
쏟아온 군사통치의 잔여
를 남김없이 청산해 주
었으면 한다. 권위주의
적인 정치와 행정, 각계
각층에서 만연하는 부정
부패, 허구적 반공이념
등의 군사문화와 과감하
게 수습대에 올라야 하
는 주장을 바란다.
14대大選을 앞두고
5천여명의 서울대생들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서 90% 이상이 金泳三씨
의 집권을 반대한다고
답한바 있다. 후배들의
이러한 의견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속고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의 영구 기억



權 五 聖 83년 普大卒 韓國音樂學會長

筆者는 모교 普大 2학년
에 재학중이던 60년 4월 國
樂學界 선구자의 한 분인
云初 張師勛先生께 거문고
를 배우기 위해 처음 뵈운
이래 30여 년을 꾸준히 가
르침을 받아왔다.

자신의 책으로 책꽂이 한
단을 채우는 것이 소원이라
고 항상 말씀하시면서 평생
의 著作계회를 보여 주시
던 자상하신 선생님은 당
시의 나이 16세 되던 31년 李王
職 雅樂部員養成所에 입학하
여 76세로 永眠하실때까지
오로지 국악자로서 의로운
한 길을 걸어 오셨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
아서는 우리음악을 듣다가 죽
고나면 中國음악을 듣게 된
다』라는 일화가. 우리음악의
비록 아주 좋은 것은 아닐지
라도 중국에 비하여 조금도
부끄러울게 없으며, 중국을
악이라 하여도 또한 어찌 바
르다고만 하겠는가? 라는 世
宗大王의 말씀을 자주 인용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세종대왕 시절보다 별반 나
아지기는 커녕 더욱 나빠졌
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세
종대왕의 자주정신을 國樂史
學의 밑바탕으로 삼아 오시
던 분이였다.

36년 雅樂部員養成所를 졸
업한 후 李王職 아악부의 雅
樂手가 된 선생님은 거문고 연
주에도 헌신했지만 당시 歌曲
과 歌曲의 명창이었던 河圭
一 林基俊先生에게서 기곡,
가사, 시조를 배우면서 그것
들을 안보로 採譜하였으므
로 후일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
다. 李壽卿의 가락을 전승하
여 늘 거문고를 사랑했으며
장부하는 틀림이 거문고를
단단히 하면서도 거문고를
고의적인 거문고소리가 좋
다고 하셨다. 그분은 늘 이
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實技는

허술하기 쉽고, 실기를 모
른 이론은 생명력이 없다는
가르침을 되풀이 하여 음악
과 악보가 함께 전해 내려오
는 거문고의 중요성을 말씀
하셨다.

古樂譜 수집과 해독에 남
다른 관심을 보였던 선생
은 42년 「步虛子論巧」란 첫

한편 54년 韓大卒 韓大
를 시작으로 60년 3월까
지 국문학과장과 교무과장을
역임하신 선생님은 56년 문
교부로부터 국악문화과
교수 자격, 60년에는 국악과
교수 자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모교에서 61년부터 82년 정
년퇴임시까지 국악이론 및
거문고실기들을 통해 수많은

40권에 달하는 연구서와 문
집 그리고 수많은 논문들로
정착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國樂論巧」, 「한국의 전통음악의
연구」, 「國樂史論」, 「국악종
론」, 「한국의 전통음악의
연구」, 「국악대사전」 등이 대표적
인 저서이다. 선생님의 연구
분야는 古樂譜의 해독을 중
심으로 한 음악사학 분야와
자문고의 연구방법을 통해서
본질적인 한국전통음악의 특
색을 연구하셨다. 그리고
전통음악분야에까지 확대되
어 왔다. 특히 거문고 선생
의 학문적 열정과 정년퇴임
후 은명전까지도 꾸준히
연구활동을 계속하신 학자적

본고 다시 꺼내보는 행동을
되풀이하는 문제의 실마리
가 풀린 것임이 한두번이 아
니었음을 일깨워 주신 하
셨다. 70년대 이후부터는 자
기 학문에 부추긴 점이 많
았다 하더라도 후학을 위해
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활자화해 두어야
겠다는 말씀을 자주 필자에
게 하셨다.

학자로서 품위 높고 치밀한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
는 선생님이시지만, 개인생
활에 있어서는 斗酒不辭의
후량한 성정을 보여주시는
도 많았다. 필자의 재학 시절
음악대학이 을지로 6가에 있
었기 때문에 근처 목로주점
에서 술잔을 같이 기울이시
며 음문들을 토론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며 국악교육연구회
나 국악학회의 일이 끝나고
나서도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닌 마치父子之間과 같이
가정과 주변의 잡사에 이르
기까지도 늘 충고와 자극을
주시곤 하셨다.

선생님은 「國樂은 방송에
서도 푸대접이요, 국민학교
와 중학교와 고교의 음악교육에
서도 제대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네, 서양
음악만 듣고 자라서 서양
음악으로 교육받고 서양
식의 음악만 즐겨듣는 세대
들을 보면 무엇이 잘못됐
단다. 잘못되었는데도 해서
국악교육에 늘 불만을 토로
하셨다. 그런것들을 바로잡
는데에 앞장서서 세미나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꾸준히
계몽해야 할 것을 되뇌이곤
하셨다. 선생님을 회상하면
이런 국악이론에서 유난히
자기주장이 강하면서 대쪽같
은 선비정신으로 한문을 팔
지 않고 오직 국악의 보급과
발전에 몰두하셨던 분이
실이다. 그러한 고집스러
움 때문에 동료국악인들 사
이에 소원한 관계도 가끔 있
었지만 참바람 우리 문화공
토에서 우리국악의 정통성을

찾고 우리고 한자문 풍류
어느 누구라도 인정치 않
수 없을 것이다.
선생님의 「國樂論巧」에 실
린 16편의 논문에 대한 李惠
求 선생의 서평에 다음과 같
은 구절이 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梅花
點長短考, 歐羅巴絲琴字譜의
해독과 현행 편성조와의 관
계, 時調와 巫女時調와의 관
계, 弄絃法의 연구, 宋才唱
詞管閣 諸篇은 전히 前人의
손을 대지 못한 분야를 개괄
한 귀중한 문헌이고, 특히
步虛子論巧, 靈山會相에 관
한 세편의 논문은 지난한 군
악태령의 해독과 현행것과의
비교에 성공한 점이 있어 행
운이라 할 만함을 회한한 일
이다. 이 연구로 저자는 영산
회상, 거의 全曲에 한하여
그 본모습을 엿보게 되었
다.』

자상하게 지도해준 선생
이 없는데도 오직 혼자 힘으
로 옛안보를 풀었던 云初선
생님의 노고를 객관적으로
높이 평가한 것이다. 또한
「국악대사전」에 대한 千眞宇
씨의 서평에 「李惠求공이 한
산성 龍潭의 밤에 어딘가
들려오는 「一聲胡笳」에 애
어했다」는 그 胡笳가 도대체
무엇인지 보통 사전을 찾아
보면 불라라라고 나와 있
는 한데, 이제 보니 바로 이
부드러운 날라리가 아니었
을까 상심도 해보았다. 마침
책장에 새로 꽂힌 張師勛박
사의 「국악대사전」을 들춰보
았다. 한번 통독하는데도 몇
해가 걸리는 「조선왕조실록」
까지 실감이 났다는 30년
역정에 한쪽 눈을 실명했다는
감격적인 보도도 있는 이 사
전에는 과연 「大吹打」 항목에
도 현대 오선보를 곁들인 자
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런 사평에서도 불
수 있듯 云初 張師勛박사의 자
료정리와 사실고증에 뛰어난
업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예술이냐 학문이
냐의 문제로 미처야만 그 결과
를 실정적으로 보여주시는 선
비로서, 예술가로서, 스승이
로서, 의젓하고 자상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게 된다.

대쪽같은 선비정신의 國樂學者 云初 張師勛先生 님



〈生前의 張師勛先生〉

自主精神을 國樂史學의 근간으로 삼아

「우리음악」의 정통성 찾기에 心血기울여

제자들을 배출하셨다.
이밖에도 선생님은 한국국
악교육연구회를 설립하여
「國樂教育」학술지를 출간하
셨고, 모교음대 부설 동아를
악연구소를 설치하여 「민족
음악학」이란 학술지를 또한
발간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82년 정년퇴임이
후에도 서울대학교 명예교
수, 예술원회원, 한국국악학
회장, 한국음악학연구회장
등으로 활약하시는 한편 淸
州대학교 예술대학장을 역임
하셨다. 91년 5월 평생을 안
아지중지 수집하셨던 국악판
계 서적 및 연구자료와 악기
를 기증하여 전주대학교 부
설 「민족음악자료관」을 개관
하시고 같은해 9월 25일 永
眠하셨다.

云初선생님의 학구 음악학
계에 남긴 공적은 그분의
태도는 후학들에게 몸소 실
천으로써 보여주시는 학문적
귀감이라 할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그
렇지만 선생님의 남다른 정
은 방대한 분량의 독서카드
와 그 정리의 치밀함이라 하
겠다. 자신이 쓴 원고의 대
부분과 자료들을 손수 제본
하여 서재 한쪽에 차곡차곡
쌓아 두셨다. 심지어는 50여
년전에 쓰다 남은 李王職 雅
樂部의 五線譜까지도 보관하
고 계셨다. 그러나 그분은
학문이란 책을 많이 읽었다
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자료를 많이 모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하시면서 늘
문헌을 발전하고 그것을
인용이 되었어 보아야 한다
고 말씀하시며, 그러다 보면
점차럼 해결될 수 없을 것 처
럼 보이는 문제라도 늘 가
랑의

서도 제대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네, 서양
음악만 듣고 자라서 서양
음악으로 교육받고 서양
식의 음악만 즐겨듣는 세
대를 보면 무엇이 잘못됐
단다. 잘못되었는데도 해서
국악교육에 늘 불만을 토로
하셨다. 그런것들을 바로잡
는데에 앞장서서 세미나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꾸준히
계몽해야 할 것을 되뇌이곤
하셨다. 선생님을 회상하면
이런 국악이론에서 유난히
자기주장이 강하면서 대쪽같
은 선비정신으로 한문을 팔
지 않고 오직 국악의 보급과
발전에 몰두하셨던 분이
실이다. 그러한 고집스러
움 때문에 동료국악인들 사
이에 소원한 관계도 가끔 있
었지만 참바람 우리 문화공
토에서 우리국악의 정통성을

찾고 우리고 한자문 풍류
어느 누구라도 인정치 않
수 없을 것이다.
선생님의 「國樂論巧」에 실
린 16편의 논문에 대한 李惠
求 선생의 서평에 다음과 같
은 구절이 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梅花
點長短考, 歐羅巴絲琴字譜의
해독과 현행 편성조와의 관
계, 時調와 巫女時調와의 관
계, 弄絃法의 연구, 宋才唱
詞管閣 諸篇은 전히 前人의
손을 대지 못한 분야를 개괄
한 귀중한 문헌이고, 특히
步虛子論巧, 靈山會相에 관
한 세편의 논문은 지난한 군
악태령의 해독과 현행것과의
비교에 성공한 점이 있어 행
운이라 할 만함을 회한한 일
이다. 이 연구로 저자는 영산
회상, 거의 全曲에 한하여
그 본모습을 엿보게 되었
다.』

자료정리와 사실考證에 뛰어난 업적, 後學에 귀감

자상하게 지도해준 선생
이 없는데도 오직 혼자 힘으
로 옛안보를 풀었던 云初선
생님의 노고를 객관적으로
높이 평가한 것이다. 또한
「국악대사전」에 대한 千眞宇
씨의 서평에 「李惠求공이 한
산성 龍潭의 밤에 어딘가
들려오는 「一聲胡笳」에 애
어했다」는 그 胡笳가 도대체
무엇인지 보통 사전을 찾아
보면 불라라라고 나와 있
는 한데, 이제 보니 바로 이
부드러운 날라리가 아니었
을까 상심도 해보았다. 마침
책장에 새로 꽂힌 張師勛박
사의 「국악대사전」을 들춰보
았다. 한번 통독하는데도 몇
해가 걸리는 「조선왕조실록」
까지 실감이 났다는 30년
역정에 한쪽 눈을 실명했다는
감격적인 보도도 있는 이 사
전에는 과연 「大吹打」 항목에
도 현대 오선보를 곁들인 자
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런 사평에서도 불
수 있듯 云初 張師勛박사의 자
료정리와 사실고증에 뛰어난
업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예술이냐 학문이
냐의 문제로 미처야만 그 결과
를 실정적으로 보여주시는 선
비로서, 예술가로서, 스승이
로서, 의젓하고 자상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게 된다.

21세기를 여는 서울大人

○... 각계 각분야에서 투철한 意志와 능력 ...○
○... 으로 각광을 받는 서울大人이 있다. 21 ...○
○... 세기를 열어가는 尖端분야에서 세계 제 ...○
○... 일을 指向하는 자랑스런 同門들의 오늘 ...○
○... 을 점철하면서 내일에 기대를 걸고刻 ...○
○...苦的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젊음을 위해 ...○
○... 本欄을 신설한다.○

『신문』은 1980년 1월 1일 창간 이래 13년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



〈85년 工大卒〉

선경섬유研 金益秀

工大卒 연구원의 섬유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다. 그의 발명품은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달변만큼이나 연구의욕도 왕성한 그는 지난 97%나 차이를

미래産業 金益秀의 섬유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다

선경인스티트 섬유 연구소의 金益秀(85년

紫外線차단纖維개발

지금껏 국내 컴퓨터업계는 다국적 컴퓨터기업이 영문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한글화를 기다렸다가 한글로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악순환에

서울대마이컴연구팀

한글·英文 모두 사용

한글 SW 발전에 기여

우즈(Windows, DOS)를 한단계 더 발전시킨 컴퓨터운영시스템의 하나를 개발한 서울대 마이컴연구팀의 5인방인 申秉錫, 李哲熙, 張盛喆, 李民錫, 幸効貞 등이 개발한 '누렁이' 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

윈도즈용 WP 보급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지 5백5십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말의 기계적 표현은 그다지 자유스럽지 못한 것 같다. 컴퓨터에서의 한글 사용이 그것.

劉載俊 서강대교수

世界科學에서 주목

「브레인폴」제 첫수혜자

가장 가치있는 시대의 슈퍼 컴퓨터... 현대물리학자들이 꿈

첨단고체物理學선도

에서 가장 앞선 분야는 두뇌이다.

합春後援會(회장 李迎雨)는 모교병원 가족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환자들을 돕기 위해 만든 봉사모임이다. 金勇一 제2부원장, 李永子 간호부장, 鄭利成 기획과장, 任柱燦 전공의협의회대표 등 모교의대 교수, 간호사, 병원직원 및 학생,

장(임상병리과), 총무에 金柄國 교수(내과)를 선출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과 시설을 갖추고 의료활동

환자나 모교의 불우학생, 직원들을 돕는 작은 씨앗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 발기회에서 밝힌 이 모임의 취지라고 金총무는 말했다.

대상으로 약값,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를 일부 보조하고 재활을 위한 기자재,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한 이에 필요한 기금은 회비, 찬조금, 바자회 개최, 모금함 설치 등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우리 병원의 경우 치료비나 입원비를 내지 못하고 도망치다시피 퇴원하는 환자가 1년에 50여명이나 됩니다.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진정한 仁術의 필요를 절감하게 되는데 이런 모임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봉사하는 의료인으로서 후배 의학도들의



합춘후원회



◇모교병원 A강당에서 열린 創立總會

병원내 종교단체대표 26명은 지난해 11월 12일 첫 발기인 모임을 가진 이래 여러차례의 회의를 거쳐 12월 1일 병원 A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同會는 회장에 李迎雨 교수(내과과장), 부회장에 李孝杓 교수(산부인과), 감사에 成相哲 교수(정형외과)와 韓錫鍾 기사

을 해왔으나 집안형편이 어려운 소외받는 환자들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 이제는 반짝하는 限時性 불우이웃돕기를 지양하고 우리가 늘상 가까이서 보는 불우

후원회는 ▲암·당뇨·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자 ▲행려병자 ▲의료보험 적용단기가 지난 환자 ▲불우노인, 소년소녀 家長 ▲친권포기아동환자 등을 우선지원

불우환자 돕는 奉仕모임

모교병원·醫大관계자들로 구성

“仁術통해 醫學徒에 모범 보일터”

외국이나 종교재단, 사학이 운영하는 병원, 심장재단이 이미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들은 교회나 성당, 사회 사업가들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同會처럼 의료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모임과는 차이가 있다.

모범이 되고자 합니다』라며 金총무는 동문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추운 겨울날씨 속에서도 의대 본부 앞들의 히포크라테스像은 움츠린 어깨를 활짝 펴고 있었다. (張)

日本여행落穂

우리 인간생활에서 옛날을 추구하고 회상한다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고상한 일이다. 고향을 찾아 옛동산에 올라 올

날의 회상에만 잠긴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인간적 마음속에 추억의 아리따움을 심어주고 삶의 보람과 훈훈함을 안

여가나 더하기 전에 舊制高等學校의 소재지인 松江를 한번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

關에 도착하여 그 다음날 松江으로 가는 열차를 탔다. 이 열차는 日本本州의 東海에 面한 連安을 따라 京都方面으로 달리는 데 途中에서 전개되는 東海岸의 絶景은 정말 筆墨으로 그

가지고온 珍寶파리를 쫓는다. 이 열차는 日本本州의 東海에 面한 連安을 따라 京都方面으로 달리는 데 途中에서 전개되는 東海岸의 絶景은 정말 筆墨으로 그

는 사실이 얼마나 異國情調을 여행하는 나그네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보자기에는 이날 저녁에 열리게 되어 있는 중요한 모

은 拾得物이 되며 그 처리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쪽에서는 몇

名譽教授 칼럼



李 榮 基 (前 모교중앙도서관장)

려간 어린시절을 더듬어 본다는 것, 소꿉친구들과 더불어 뛰놀던

8.15해방전 日本의 舊制高等學校에서 공부하던 동지들이 몇몇 있

여러모로 생각할 수 있는 해방을 배로 건너간 것을 포기하고 서울서 福岡까지 비행편을 이용하였

더듬으며 70을 바라보는 老紳士들이 다시 이 열차에 몸을 싣고 있는 것

있다. 사람들은 제법 많이 왔다갔다 하였을 驛구내의 벤치위에 놓여있던

그날중으로는 도저히 그 보자기를 다시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사정

의 한사람이 매일같이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자동차가 없어서도 아니

요, 기계를 살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농촌에 가보면 가가호호 자

만 대강한 경우에는 자전거를 잘들 이용한다. 그것이 전장에도 좋고

다. 松江에서 觀瀾亭으로 大坂으로 갔다. 같이 동승했던 80가이 되는

老婦가 자기의 소레기를 말없이 챙겨가고 내린 다. 좌석앞에 마련되어



安 輝 濬 (67년 文理大卒) (前 모교 박물관장)

繪畫의 起源 ②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감상보다는 생존을 위한 주술적, 실용적 목적하에 발전하기 시작하였음을 밝혀준다. 또한 2만년 이전에 그려졌을 것으로 믿어지는 구석기시대의 이 동굴벽화는 오늘날에 있어 바위표면을 잘 활용하여 마치 평면하게 잘 다듬어진 벽면에 그린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 뛰어난

가을에는 배제할 수 없다. 동양에서의 회화의 기원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것은 中國의 中國에서 회화의 기원이 有巢氏, 伏羲氏, 神農氏, 燧人氏와 있다고 옛날부터 간주되어 왔다. 먼저 有巢氏는 새의 집을 보고 인간이 살

되는 점으로 보면 그는 인류가 동물속이 아닌 지은 집속에서 살기 시작한 新石器時代의 사람이며, 따라서 中國에서 회화의 기원도 신석기시대와 비유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음이 었로

다. 그리고 이 시대의 舊蹟도 회화의 기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마차, 무기, 배, 토기 등을 발명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黃帝(BC 2698-2598)의 대인으로서 奎星圖曲之勢를 살피고 斧斤이 무

의 새의 깃털, 山川, 雲수, 草木 등을 관찰하여 象形文字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書畫가 同源同體라고 보게 되는 소이다.

또한 舜禹의 女동생인 敎習는 회화를 본직으로 발전시킨 인물로 간주된다. 이 밖에 신석기시대인 仰韶文化期(BC 3800-2500)의 彩陶에 그려진 각종 무늬나 漆器의 표면의 묘사된 문양 등도 中國 회화의 기원과 연관지어 크게 참고된다. 이러한 것들은 중국을 위시한 동양에서는 회화가 실용적 기능과 밀접한 연관

에 이미 발전하기 시작하였음을 밝혀준다. 역 구내의 벤치위에 놓여있는 보자기,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냐까 누구도 손을 대지 않는 정직함, 까다로운 규정

에 위배되지 않고 異國 손님에 대한 사정을 풀어주는 친절함, 약 1천 여불 정도의 貿易照字를 내면서도 자동차기를 절단하는 근검함, 쓰레기 한톨도 헛되게 처리하지 않는 청결함, 이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당 연히 그러하여 할 일들이야 할 일들이 자연스럽 게 이루어지고 처리되는 사회, 그 사회는 당 연히 발전하게 마련이

趣味 생활

본디鑑賞보다 呪術·생존이 목적 實用的 기능과 연관되면서 발전

繪畫의 起源에 대해 먼저 대두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그것이 언제 부터 왜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는 起源에 관한 사생활이다. 회화의 기원은 인류의 문명이나 예술의 발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그런데 회화는 본래 동양이나 서양에서 다같이 순수한 鑑賞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였다. 생존을 위해서 작아지고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점은 지금 까지 밝혀진 인류의 가장 오래된 그림인 스페인과 불란서의 舊石器時代 洞窟壁畫에서 잘

입증이 된다. 자연의 자궁으로 간주되는 동물의 진숙한 곳에 식량원으로서의 각종 동물들과 사냥장면을 그쳐 동물이로써 사냥감의 확보나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呪術의 목적을 띠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림의 역사가, 인류가 동물속에 살면서 수렵을 하여 먹고 살던 구석기

난 묘사력을 드러내어 준다. 이것은 인류가 이 미수렵전 구석기시대 부터 고도의 美意識과 뛰어난 묘사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해 준다.

동양에서는 아직 확실한 구석기시대의 동물벽화 발견된 바 없으나 회화의 始原이 현재까지 밝혀진 것보다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을 만들고 그 표면에 각종 문양이나 나선형 무늬를 그려 넣었는데 이것이 바로 회화의 기원과 관계가 있다고 간주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회화는 그 초기 단계에는 문양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고 믿어진다. 또한 有巢氏가 처음으로 집을 짓기 시작한 인물로 간주

에 기여한 그는 人面蛇身의 創造神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그는 하늘에서 象을 보고 땅에서 法을 보았으며, 동물이 나 새의 모양을 보아 가 까운 것에서 몸을 취하고 먼 것에서 물을 취하여 八卦를 만들었다. 그 런데 天地, 風雲, 水火, 山, 澤을 바탕으로 한 8괘의 창고는 회화의 태동과 깊은 연관이 있

東洋에선 新石器시대부터 繪畫의 모습 갖춰

다. 그리고 이 시대의 舊蹟도 회화의 기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마차, 무기, 배, 토기 등을 발명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黃帝(BC 2698-2598)의 대인으로서 奎星圖曲之勢를 살피고 斧斤이 무

의 새의 깃털, 山川, 雲수, 草木 등을 관찰하여 象形文字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書畫가 同源同體라고 보게 되는 소이다.

또한 舜禹의 女동생인 敎習는 회화를 본직으로 발전시킨 인물로 간주된다. 이 밖에 신석기시대인 仰韶文化期(BC 3800-2500)의 彩陶에 그려진 각종 무늬나 漆器의 표면의 묘사된 문양 등도 中國 회화의 기원과 연관지어 크게 참고된다. 이러한 것들은 중국을 위시한 동양에서는 회화가 실용적 기능과 밀접한 연관

에 이미 발전하기 시작하였음을 밝혀준다. 역 구내의 벤치위에 놓여있는 보자기,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냐까 누구도 손을 대지 않는 정직함, 까다로운 규정

에 위배되지 않고 異國 손님에 대한 사정을 풀어주는 친절함, 약 1천 여불 정도의 貿易照字를 내면서도 자동차기를 절단하는 근검함, 쓰레기 한톨도 헛되게 처리하지 않는 청결함, 이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당 연히 그러하여 할 일들이야 할 일들이 자연스럽 게 이루어지고 처리되는 사회, 그 사회는 당 연히 발전하게 마련이

다. 역 구내의 벤치위에 놓여있는 보자기,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냐까 누구도 손을 대지 않는 정직함, 까다로운 규정

▲黃仁 誥(62년 法大卒 변호사) 1월 20일 오전 11시 37분 강원성보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 黃동문(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대표간사를 지내는데 인권변호사로서 외길인생을 살았다.

▲李 永子(63년 看護大卒 母校교수) 1월 16일 23시 서울대병원에서 수막염으로 별세.

科·學·2001

지난호에 소개한 미래의 자동차 항법장치 「길잡이」 이미 미국에서 출하된 일부 고급승용차에 지도가 내장되어 있어 미래의 승용차 항법시스템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지도위에 현재 자기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항법장치는 관성항법장치, 즉 INS(inertial navigation system)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주축으로 꾸며지리라 예상된다.

GPS는 지난 70년대 미국에서 軍用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여 지금도 계속 시스템을 확장, 보완해 나가고 있는 24개의 인공위성으로 구성된 일종의 전파항법장치이다. (올해 안으로 24개 전부가 띄워질 예정임) 24개가 모두 띄워지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 간단한 수신기 하나로 자기의 위치를 금방 알 수 있는 편리한 항법장치이다. 또한 현재 그 오차가 1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확도를 갖고 있다. 80년대 중반 이것을 商用으로 개발시키면서 잡음을 잔뜩 섞어버렸다. 그만한 정확도를 갖는 항법장치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항법장치를 자동차에 탑재시키려면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하나는 INS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중급 INS만해도 가격이 몇 10만달러에 이른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광섬유를 이용한 자이로스코프(fiber optical gyroscope)나 반도체기술을 이용한 자이로스코프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 한가지는 GPS 수요가 충분히 많아 商用專用GPS를 개발하는 것이다. 아니면 非軍用産業側의 압력으로 기존 GPS에 잡음을 섞지 않든가. 이와같이 기술적으로서 자동차항법장치가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여건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집고 넘어갈 것이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자동차항법시스템, 과연 필요한 것인가?

지난 여름 보스턴에 갈 일이 있어 보스턴 로건에어포트에서 차를 빌렸다. 목적지까지의 길 안내를 부탁했더니 지도 한장을 건네주고 앞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안내를 받란다. 컴퓨터에서 지시하는대로 버튼을 누르니 자

자동차

관성항법장치 ②

李章揆(71년工大卒·모교교수)

개발한 나라가 없어 軍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商用GPS의 오차범위는 100m 정도. 재미있는 것은 商用



商用 GPS 오차범위는 100m 정도

GPS메이커들이 그 오차를 좀 줄여 항공기에 사용하려고 상당히 많은 연구개발비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돈을 들여 일부러 성능을 떨어뜨리고 또 한쪽에서는 돈을 들여 그것을 개선시켜보려고 애를 쓰고

INS의 정확도는 현재 중급이 초당 51cm 정도의 오차를 갖고 있다. 짧은 시간 동안이라면 GPS보다 훨씬 적은 오차를 갖지만 이것은 시간이 증가하면 오차도 따라 늘어나는 특징을 갖는다. INS와 GPS를 혼합해 만든 항법장치는 수m 이내의 오차를

세한 길안내가 찍혀 나왔다. 그 덕에 별로 해매지 않고 목적지를 잘 찾아갔다.

앞으로 세계는 급속도로 국제화되어질 것이다. 어떤 이는 이제 국가라는 것의 의미는 점차 축소되고 국제분업을 통한 다국적기업들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는 낯선 곳, 낯선 도시에서 행동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잦아질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항법시스템이 부착된 차와 않은 차 둘중 어느 것을 택하겠는가?

큰 위험에 다시 직면하게 되었다. 성인병이란 게 몸이 아픈 정도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성인병이란 노년, 신장병, 각종 암, 만성관절염 등 각종 만성 퇴행성질환을 총칭하는 말이다. 현재 전 인류의 3분의2가 이러한 성인병의 한가지에 의해서 희생되고 있다.

장 관계가 있다. 근래 성인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기건강진단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정기건강진단으로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발병된 후에는 현대의학으로도 완치는 매우 어렵고, 질병을 잘 관리하여 질병의

기위해서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중의 불건강한 생활습관을 찾아내고 고쳐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첫째로 올바른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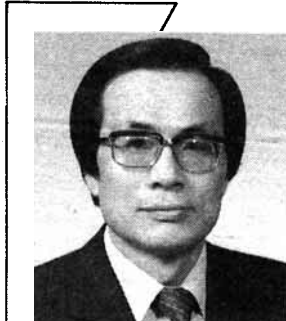
은 것도 성인병예방에 도움이 된다. 성인병이 많은 식품은 변비를 일으키는 대장암 유발인자를 예방하고, 당뇨병, 동맥

악, 체장암, 방광암, 자궁암을 전체 모든 암의 30%는 흡연과 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을정도로 유해하다. 그외만

하. 이러한 건강관 생활습관을 잘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11년이상 평균



인류의 역사는 질병과의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이다. 지난세기동안 인류를 괴롭혀던 많은 전염성 질환은 예방백신, 항생제의 개발등으로 차츰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다. 이러한 의학의 눈부신 발전과 위생상태의 개선등으로 인간의 수명은 크게 연장되었다. 수명의 연장은 파



許鳳烈
(67년 醫大卒·서울대) 병원가정의학과장

成人病 예방

로선 유전적인 체질이 관계될 수 있지만 그 보다는 생활습관, 즉 생활양식이 가장 중요하다. 즉 식사, 운동, 술, 담배, 휴식, 스트레스 등 이 성인병의 발병과 가장 중요하다. 예방을 하

癌의 30%는 흡주·흡연에서 비롯

성유질 식품·푸른생선등 豫防에 도움
절도있는 日常생활 평균수명 11년연장

생활습관은 성인병의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 먼저 짜게 먹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짜게 먹으면 혈압을 상승시키고, 소금에 절인 음식은 위암 등의 발병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과다한 동물성지방의 섭취를 피해야 한다. 이들 동물성지방에 있는 포화 지방산은 동맥경화를 촉진시키고 유방암, 대장암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물고기 특히 등푸른 생선 및 식물성 지방에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포화지방산과 반대적인 작용을 하므로 동맥경화증을 예방시킨다. 1주에 생선요리를 한두번씩 먹

는 것보다 성인병예방에 훨씬 도움이 된다. 흡연은 폐암, 후두암, 위암, 간암, 심장병, 동맥경화,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적당량의 흡연을 하는 것은 1주일에 3-5회 정도 적당하며, 한번에 30분 내지 1시간씩 등에 담이 빨 정도는 운동량이 적당하다.

셋째로 금연을 실천해야 한다. 흡연은 폐암, 후두암, 위암, 간암, 심장병, 동맥경화,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적당량의 흡연을 하는 것은 1주일에 3-5회 정도 적당하며, 한번에 30분 내지 1시간씩 등에 담이 빨 정도는 운동량이 적당하다.

자극성 음식·동물성脂肪 섭취 삼가해야

빠짐없이 會費내어 參與하는 同門되자!

年 1回 納付하시는 會費는 母校사랑과 同窓會 活性化에 參與하는 徵表가 됩니다. 特히 動靜欄을 利用하시는 同門께서는 會費納付에 술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今年부터는 會費 未納同門에게 不得已 同窓會報 發送을 中止합니다.

서울대학교同窓會

理事	12월 1일	12월 30일
一般	11월 1일	12월 30일

人名 밑 원내 숫자는
卒業年度

▲姜亨模 ⑥⑥ 아세아항공미사장
▲郭芝相 ⑤⑦ 수안보호텔사장
▲金泳達 ⑥① 입업연수원장
▲金鎭八 ⑤② 미성동약사장

▲康南彦 ⑥2 안거회계범어대표
▲金榮洙 ⑤6 강원교원연노인회장
▲朴鎮旭 ⑦1 한국개발리스사업부
▲宋三錫 ⑤2 모나미회장
▲申世吉 ⑥1 삼성물산사장

一 會費 予 是 一

• 一般會員	1만원
• 理事	5만원
• 常任理事	20만원
• 監事	30만원
• 副會長	50만원
• 會長	100만원

정영단	이혜주	이영수	우종근	신민우	박홍주	박산우	문혜진	김찬동	김정남	김영식	김수용	김상명	김관주	권은종	김두호
77	87	88	81	87	89	86	86	86	89	88	89	85	77	82	88
최민	정민호	이현우	유승철	안범우	배은일	박시균	민철환	문성원	김지민	김인진	김아영	김상배	김기택	김경림	강인자
83	89	87	83	76	82	88	88	83	87	88	87	87	88	89	86

▲ 권응렬 (87)	▲ 김광호 (89)	▲ 김재일 (76)	▲ 김정교 (67)	▲ 조재원 (88)
▲ 권행민 (82)	▲ 김재규 (80)	▲ 김재훈 (89)	▲ 남중수 (79)	▲ 박선호 (33)

▲ 성 순용 (83)	▲ 배 성직 (78)	▲ 박 명덕 (89)	▲ 민 경석 (88)	▲ 김 상보 (86)
▲ 소 재귀 (86)	▲ 백 병태 (76)	▲ 박 정환 (87)	▲ 박 남규 (87)	▲ 김 정식 (87)

한진섭	최인준	조승만	정병희	전용호	임규호	이문규	이근호
87	81	88	87	89	77	87	86
▲	▲	▲	▲	▲	▲	▲	▲
함광선	최하우	최승정	정진석	정진	장호완	이재범	이용호
79	86	85	89	86	87	89	88

▲김경민 (85) ▲김미숙 (84)

▲이현래 (86) ▲이정례 (76) ▲윤명숙 (71) ▲안영숙 (56) ▲서혜소 (77)
▲장금아 (88) ▲이정자 (55) ▲이원희 (86) ▲윤기숙 (72) ▲송영희 (74)

▲ 혼경지 ⑥ ▲ 혼겨동 ⑦

▲ 유수영 (86)
▲ 이경숙 (81)
▲ 유현숙 (73)
▲ 윤미선 (82)

◆ 人文大學

▲ 권응렬 (87)	▲ 김광호 (89)	▲ 김재일 (76)	▲ 김정교 (67)	▲ 조재원 (88)
▲ 권행민 (82)	▲ 김재규 (80)	▲ 김재훈 (89)	▲ 남중수 (79)	▲ 박선호 (33)

▲ 성 순용 (83)	▲ 배 성직 (78)	▲ 박 명덕 (89)	▲ 민 경석 (88)	▲ 김 상보 (86)
▲ 소 재귀 (86)	▲ 백 병태 (76)	▲ 박 정환 (87)	▲ 박 남규 (87)	▲ 김 정식 (87)

한진섭	최인준	조승만	정병희	전용호	임규호	이문규	이근호
87	81	88	87	89	77	87	86
▲	▲	▲	▲	▲	▲	▲	▲
함광선	최하우	최승정	정진석	정진	장호완	이재범	이용호
79	86	85	89	86	87	89	88

▲김경민 (85) ▲김미숙 (84)

▲이현래 (86) ▲이정례 (76) ▲윤명숙 (71) ▲안영숙 (56) ▲서혜소 (77)
▲장금아 (88) ▲이정자 (55) ▲이원희 (86) ▲윤기숙 (72) ▲송영희 (74)

▲ 혼경지 ⑥ ▲ 혼겨동 ⑦

▲ 유수영 (86)
▲ 이경숙 (81)
▲ 유현숙 (73)
▲ 윤미선 (82)

▲김인일(88) ▲김인두(64) ▲김용달(70) ▲김영준(65) ▲김시수(66) ▲김세돈(79) ▲김상연(86) ▲김만홀(61) ▲김동익(57) ▲김동섭(68) ▲김대권(74) ▲김남태(66) ▲김수(61) ▲권영일(69) ▲권영일(59) ▲권동렬(63) ▲파주인(78) ▲강창원(53) ▲가성탈(58) ▲서성석(49) ▲현우홍(43) ▲황학선(42) ▲이현(37) ▲서문수(46) ▲박태규(42) ▲김주홍(39) ▲김자현(46) ▲김인상(79) ▲김유후(63) ▲김완순(64) ▲김영명(60) ▲김승규(60) ▲김상태(70) ▲김명수(60) ▲김동훈(61) ▲김동식(70) ▲김덕준(75) ▲김남홍(60) ▲권진욱(60) ▲권오주(60) ▲권순대(60) ▲구자만(60) ▲강대형(60) ▲강신영(60) ▲강규석(60) ▲김영철(60) ▲박상일(60) ▲이준상(60) ▲여운수(60) ▲박현수(60) ▲박찬수(60)

會員 모두 參與하는 獎學事業

◆ 師範大學

▲이법무	▲이명재	▲이도조	▲이근식	▲이국주	▲이광진	▲유동해	▲유태순	▲유해돈
(61)	(65)	(69)	(47)	(68)	(55)	(64)	(63)	(61)
▲이상문	▲이문재	▲이동수	▲이기섭	▲이근관	▲이계영	▲유도환	▲유도호	▲유홍중
(61)	(65)	(69)	(47)	(68)	(55)	(64)	(63)	(61)

◇ 商科學

▲김종근 (71)	▲김종대 (80)	▲김정숙 (59)	▲김정길 (65)	▲김이종 (65)	▲김용일 (55)	▲김연옥 (55)	▲김세호 (61)	▲김병순 (61)	▲김두영 (56)	▲김대관 (88)
▲김창길 (60)	▲김종대 (63)	▲김정순 (65)	▲김정문 (77)	▲김재우 (69)	▲김은숙 (81)	▲김영민 (78)	▲김성옥 (65)	▲김명수 (57)	▲김대식 (61)	▲김대식 (61)

◇ 獸醫科學大學

◆藥學大學

▲김상민 (41)	▲문재형 (47)	▲이헌수 (49)	▲강해석 (78)	▲길이룡 (89)
▲김윤실 (41)	▲박홍재 (49)	▲강장원 (57)	▲권성배 (71)	▲김택 (62)

◆音樂大學

▲구로소(78)	▲압부(64)	▲안민(89)	▲송철(69)	▲순첼(75)	▲백영한(51)	▲박원희(79)
▲유여규(75)	▲오세열(87)	▲양모규(80)	▲송기령(87)	▲송영욱(80)	▲서정선(76)	▲박주배(74)

◇ 醫科大學

▲유소 78	▲김부 64	▲안영민 89	▲송철 69	▲손철 75	▲백영한 51	▲박원희 79
▲유여규 75	▲오세열 87	▲양모규 80	▲송기령 87	▲송영욱 80	▲서정선 76	▲박주배 74

◇ 齒科大 附

▲ 화성유 (80) ▲ 홍창기 (61) ▲ 홍영택 (78) ▲ 홍순국 (66) ▲ 홍성환 (82) ▲ 홍성모 (74) ▲ 현정진 (53) ▲ 함대우 (59) ▲ 한정수 (77) ▲ 한병재 (64) ▲ 한동환 (85) ▲ 하대우 (84) ▲ 최진영 (65)

▲ 황규영 (82) ▲ 홍재웅 (69) ▲ 홍영진 (76) ▲ 홍선홍 (81) ▲ 홍성태 (75) ▲ 홍우원 (63) ▲ 현우철 (51) ▲ 한홍수 (74) ▲ 한신홍 (68) ▲ 한두진 (68) ▲ 최진화 (67)

◆ 經營大學院

[illegible]

◇ 教育大學院

◆ 保健大學院

▲강영삼(68)	▲김대을(76)	▲박주형(88)	▲서광석(81)	▲원종만(80)	▲지미숙(74)	▲과상빈(71)
▲조나현(77)	▲이성규(77)	▲배은상(80)	▲송달옥(70)	▲이희대(70)	▲편재홍(85)	▲권황옥(85)
▲오형대(70)	▲박대근(86)					

◆保健大学院

▲관상빈(71) ▲지미숙(74) ▲원종만(80) ▲서광석(81) ▲박주형(88) ▲김대을(76)
▲권환우(85) ▲편재홍(86) ▲이희대(74) ▲송달옥(87) ▲배은상(89) ▲박대근(85)

체이스택업(한인) : 7만 원	공주교대 : 22만 원	중앙표주 : 29만 원	주택은행 : 60만 원	대한전선 : 21만 원	대한생원 : 20만 원	명지전문대 : 21만 원	농수산물공표센터 : 8만 원	태광산업 : 10만 원
------------------	--------------	--------------	--------------	--------------	--------------	---------------	-----------------	--------------

◆ 行政大學院

▲원오정	▲서병환	▲장성호	▲최준항	▲한규열	▲강인준	▲김구현	▲김복룡	▲김태중	▲신부성	▲유형식	▲조일호
▲김창락	▲이광종	▲장지열	▲하정원	▲허범	▲권오상	▲김병남	▲김인주	▲박승덕	▲유금목	▲정은백	
▲김도영	▲정민민	▲고선하	▲송도영	▲이장수	▲최찬환	▲박용규	▲정연민	▲정현우	▲권선태	▲유철보	▲최재호
▲임아람	▲정현우	▲권선태	▲유철보	▲최재호		▲임아람	▲정현우	▲권선태	▲유철보	▲최재호	

◇環境大學院

支 部

支

인도네시아 : 42만 3천
체이스페인 : 22만
공주교파 : 22만
동양명주 : 29만
주택명행 : 60만
대한전선 : 21만
대한생명 : 20만
명지전주명 : 21만
남주명대명 : 8만
태평선명 : 10만

강의한 내용과
생각에 첫발을 내딛고 후
배들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리즈를 썼다.



모교 학생생활연구소(소
장 徐鳳延)가 그동안 「교
수와 의 대화」, 「서울대인의
포럼」 등을 통해 선배들이

大學生活지침서 出刊

학생생활연구소 「叢書1·2·3」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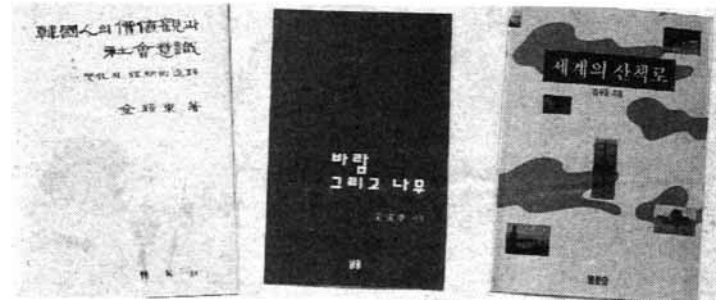
「대학생활의 실제」, 「대학생활과 학문」, 「대학생활과 교양」 등 3권으로 이
루어진 이 「叢書」에서는 각
각 인건의 방향, 고교, 그리
고 길에 대한 조언, 학문
의 세계에서의 큰 업적을 남
긴 원로교수의 학문과 인
생, 대학생활에서 알아야
할 교양 등을 72명의 필자
가 기술하고 있는데, 고교
생활과는 여러면에서 다른
점으로 인해 대학생활을
이 빠지기 쉬운 막연한 불
안과 혼란에 도움을 주려
는 의도에서 펴낸다고 서
문은 밝히고 있다. 구입
되는 서울대학교 출판부
889-4424(각권 2
20쪽 내의 1권은 5천원, 2
서울대학교출판부)에

新刊

■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

— 金環東著(59년 文理大卒·모
교교수·本會부회장)

60년대초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
식 변화를 분석한 연구서. 우리
의 가치의식에 내재한 전통적
요소, 공업화과정에서 가치관변화
에 미친 영향, 관리자와 근로자
의 직업관 노동관의 변화, 한국
인의 계급관 정치의식, 근로청소
년들의 사회의식에 이르기까지
저자의 경험에 터잡은 실증적
분석이 전개됐다. (633쪽·1만3천
원·박영사刊)



■ 세계의 산책로

— 金守經著(63년 齒大卒·모교
교수)

74년 의료사절단 일원으로 사
이공에서의 파견근무를 시작으
로 80년대 후반 에딘버러대학의
객원교수 생활에 이르기까지 저
자가 다녀온 세계각국의 인상과
정경을 그린 에세이들을 모아
다. (315쪽·4천원·명문당刊)

■ 바람 그리고 나무

— 宋寅準시집(67년 法大卒·서
울高檢부장검사)

슬픈 인간조건을 규정짓는 고
뇌와 자연의 향수를 서정화시
킨 언어집. 시의 성격별로 3부류
로 나누어 80여편의 작품을 수
록. (159쪽·3천원·남송문화刊)

公演

■ 文龍姬 슈베르트피아노시리즈

— 2월9일 예음홀

국내음악가로서는 처음 시도
하는 「슈베르트피아노음악」전곡
연주 시리즈 네번째. 경원대교수
로 재직중인 文龍姬는 66년 모교

音大에 입학한후 오스트리아로
유학, 비엔나아카데미를 수석졸
업하고 피바디에비학교와 미시
간주립대 교수를 역임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피아노소나타 E플랫
장조, 4개의 즉흥곡, 소나타 C단
조를 연주한다.

■ 張桂林 귀국첼로독주회

— 2월11일 예술의전당

79년 모교졸업후 독일 프랑크

「책의 해」라는 말은 「독서
주간」이나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만큼 착잡한
느낌을 안겨준다. 그동안 우
리 국민들이 문화선진국임을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독서
를 많이 해 왔더라면 아마도
「책의 해」는 제정되지 않았
을 것이다. 금년을 「책의 해」
로 정했다는 뉴스를 접하면
서 새롭게 의욕을 다지기에
앞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다. 아니, 우리 모두는 부끄러
움에서 출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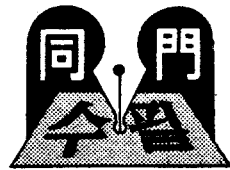
기왕에 금년을 「책의 해」
로 정해 놓은 이상, 부디 금
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도 확

「소화해야 할 책」 등으로 나
누었던 영국의 프랜시스 베
이컨이 만일 오늘의 우리사
회에 범람하고 있는 세번째
부류의 책들을 보았다면, 아
마도 기겁을 하면서 자신의
분류방법을 철회했을 것이
다. 現象이 本質을 바꾸어 버
릴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

렵게 될 것이다.

책의 존재와 기능에 대한
기본인식이 혼란스러울 정도
로 다양해지다보면 책 안읽
는 풍조, 책을 안읽어도 부끄
러워 할 줄 모르는 태도는
더욱 더 심해질 것이다. 결
국,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인 책들과 있어서는 안될 책
들이 범람하다보면 책 안 읽
는 풍조는 점점 심화되기 쉽
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런
류의 책들이 넘치게 된 배경
요인으로 책을 쓰고 생산할
법한 사람들 가운데 表現狂
에 빠져버린 사람들이나 표



책의 해 斷想

실하게 독서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전한 출
판대국이긴보다는 종이消費
大國에 훨씬 가깝다. 책도 폭
간행되어야 할 것, 간행되어
도 좋고 간행되지 않아도 그
만인 것, 간행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삼분할 수 있다고 볼
때 두번째 부류와 세번째 부
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
이다. 특히나 전체발행부수와
발행책종수에서 세번째 부류
의 책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
율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
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
었다. 이런 현실 앞에서는 젊
은 세대를 향해 책은 유익한
것이니 무조건 많이 읽어라
하고 잔소리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책을 「맛보는 선에서
끝내는 책」, 「삼켜야 할 책」,



70년 文理大卒
모교人文大교수

처럼, 두번째와 세번째 부류
의 책들이 폭주하고 있는 현
실이 심화되다 보면 「책」에
대한 종래의 인식과 관념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
다. 책은 모든 사람들이 일용
해야 할 영혼의 양식이라는
따위의 원칙론적인 주장은
더 이상 메아리를 갖기가 어

流意識에 젖은 사람들이 너
무 많은데다 또 점증하고 있
는 점을 꼽을 수 있으리라.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행태
는 「나는 드러낸다. 고로 존
재한다」라든가 「나는 흥내
다. 고로 존재한다」는 표현으
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사
람들이 줄어들기는 커녕 점
증하고 있는 현상은 부끄러
움이나 수치심에 점점 둔해
지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풍
조에 원인이 되면서 동시에
결과가 되고 있다. 폭전의
名리에 급급하여 정신의 날림
공사를 서슴지 않는 이런 사
람들일수록 학문의 요체와
기초를 오랜 세월이 걸친 부
단한 독서에서 찾았던 우리
조상들의 습기를 다시 한번
배워야 한다.

푸르트국립음대에서 디플롬을
획득하고 10여년간 현지를 무대
로 연주활동을 해온 張東문의
귀국 첫무대. 曹永芳(pf)의 협연
으로 베토벤, 쇼스타코비치, 레
거, 브람스의 첼로음악을 들려준

다.
■ 金善姬 바이올린독주회
— 2월16일 예술의전당
공주교대 조교수로 재직중인
金동문은 81년 모교 졸업후 美
로리다주립대에서 음악박사를

취득했다. 모교 재학중 음대 오
케스트라 악장역임. 현재 바로크
합주단 충남교향악단등에서 연
주활동을 하고있다. 이번 공연에
는 모짜르트, 스트라빈스키, 파가
니니, 크를, 생상이 오른다.

■ 徐龍我 피아노독주회
— 2월18일 예술의전당
88년 모교졸업후 미네소타대
학에서 음악석사를 받은 徐龍
은 77년 예음콩쿨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연주회에는 모짜
르트의 소나타 C단조, 힌데미트
의 조곡「1922」, 슈만등이 오른다.



◇ 文龍姬 (피아노)



◇ 張桂林 (첼로)



◇ 金善姬 (바이올린)

